‘종부세 과세일 임박’ 세금 회피 매물 쏟아지지만…

광주·전남 여전히 거래 ‘썰렁’

수도권 급매물 속출 … 투자자 문의 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세금 회피 목적의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1가구 2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로 인해 거래 적체현상이 심화되는가 하면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보유세 현실화 여파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주공1단지 15, 17평형의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종부세 등 보유세 현실화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고가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매물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 이전인 5월 말까지 등기를 끝내는 조건을 달고 시세보다 평균 3천만~4천만원 싼 12억원선에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주택법 통과 이후 매수심리가 더욱 위축되면서 매도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6월 이전 등기를 전제로 최근 떨어진 시세에서 2천만~3천만원 가량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34평형의 경우 잇단 부동산대책으로 최근 11억5천만원으로 주저앉았으나 종부세 회피 목적의 매물은 11억3천만원에 나와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표면화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북구 운암동과 서구 풍암동 등을 중심으로 1가구2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잇따르고 있으나 지방 주택시장 침체 및 기존 미분양 물량 적체 현상 등과 맞물려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올들어선 현지 중개업소에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지방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종부세를 둘러싼 위기감이 지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은 총 1천900명이 주택 종부세 대상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남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가 임박하면서 강남일대에 주택을 보유한 지방 투자자들의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며 “주택법 통과 이후 저가의 급매물도 팔리질 않아 종부세를 피하려는 매도자들의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한 양도세 절세 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던 집을 새로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내에 팔아야 한다.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2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가 50%로 중과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 현재 일반 매물은 10억~10억5천만원 선으로 떨어졌으나 양도세 비과세 목적의 매물은 9억5천만~9억7천만원에 나와 있다. 용인 신봉, 성복동 일대에도 지난해 중형에서 대형으로 갈아탄 수요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車 사고 입원환자 병실 부재율 17%

갈수록 늘어…제도 보완 시급

자동차사고 입원환자중 병실을 비우는 부재율이 계속 늘어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6 회계연도 1년간 서울 등 전국 40개 도시의 3천164개 병·의원 입원환자 1만7천692명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6.6%가 병실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은 2004년 회계연도 10.8%에서 2005년 16.0%로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점검 결과 주말 부재율은 19.9%로 주중 부재율 13.4%보다 크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4%로 가장 높고, 충청 19.1%, 경인 18.4%, 호남 15.9%, 부산·경남 13.8%의 순이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평균 72% 정도로 일본의 9%에 비해 8배나 높은 수준”이라며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일부 환자와 영리 목적으로 이 같은 입원을 유도·방치하는 일부 병원의 문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입원환자의 93.9%가 경상환자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잉 보상심리에 편승한 높은 입원율과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서비스업 생산성 미국의 42% 수준

대형화·전문화 시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인해 개방 확대가 예상되는 법률 및 회계 서비스 분야 등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대형화·전문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은행이 펴낸 ‘사업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42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서비스업는 법률·회계 서비스를 비롯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액(부가가치)은 2005년중 약 4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5%를 차지하며 이는 미국(12.5%) 일본(7.7%) 등 OECD 국가 평균(11.0%, 2003년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사업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천860만원으로 금융(8천170만원) 통신(1억7천650만원) 등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1인당 부가가치는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업서비스업은 1995년 3천900만원에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사업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2005년말 현재 105만명으로 서비스업에서 사업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8.6%에서 2005년 11.6%로 높아졌다. 즉 사업서비스업에 취업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부가가치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이에 따라 국내 사업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을 통한 대형화·전문화 유도 ▲전문대학원 설립, 전문인력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합뉴스

‘전국 기업도시협의회’ 창립총회 무안군을 비롯해 해남·영암군, 강원도 원주시, 충북 충주시, 전북 무주군, 충남 태안군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의 전국 7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16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전국 기업도시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대기업 직원 평균 근속연수 11.7년

국내 대기업 정규직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1.7년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온라인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2006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중 88개 기업의 직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 정규직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1.7년이었다. 남성직원의 근속연수는 12.2년으로 여성직원의 7.3년에 비해 4.9년 정도 더 길었다.

기업별로는 포스코의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9.0년으로 가장 길었고 KT(18.6년), 중소기업은행 및 현대중공업(각각 18.4년), KT&G(18.2년), 한국전력공사(17.5년), 여천엔씨씨(17.4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17.1년), 국민은행(16.7년), 두산인프라코어(16.6년), 우리은행(16.4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KT&G(19.2년), KT(16.5년), 국민은행(14.4년), 중소기업은행(14.3년), 우리은행(13.3년) 등 순으로 금융권 기업들의 여성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조선업계 ‘대형 크루즈선 건조’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중국 추격 따돌리기

세계 1위 한국 조선산업을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 조선사들이 대표적 고부가가치 선박인 대형 크루즈선 건조사업에 뛰어든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 현대삼호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STX조선 등 국내 5개 조선업체 대표들은 16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조선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2010년까지 건조능력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고속성장하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해 첨단선박 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차별화를 위해 크루즈선·해양플랜트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신분야 진출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상반기 중 정부와 업계가 크루즈선 개발에 대한 사전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크루즈선은 고도의 방음·방진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국내 조선업계가 독식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나 시추선 등과 더불어 대표적 고부가가치 조선산업이나 유럽 조선업계가 주름잡고 있다.

조선업계 대표들은 이와 함께 현재 조선시장의 호황과 신규조선소 설립 등으로 인력과 기자재난이 심각함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조선업계의 기능인력 부족 타개책으로 지역별 기능인력 양성사업의 추진과 함께 도장·용접 작업로봇 개발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제철업계가 공급량을 늘려 후판의 안정적이 공급이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직장인 스트레스 과장·차장이 많아

직장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직급은 과장 및 차장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취업·경력관리 포털 스카우트(www.scout.co.kr)가 직장인 1천247명을 상대로 회사생활에 관한 20가지 문항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트레스 지수를 알아본 결과 과장·차장급이 평균 2.81점으로 전체 직급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사원·주임급과 대리급이 각각 2.75점으로 뒤를 이었고 부장급은 2.71점, 임원·CEO는 2.43점이었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스트레스 지수 평균은 2.74점이었으며 여성(2.64점) 보다 남성(2.80점)의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종류 및 규모별로는 대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의 스트레스지수가 2.87점으로 가장 높았고 벤처기업(2.79점), 중소기업(2.76점), 중견기업(2.75점), 외국계기업(2.72점), 공기업(2.65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서비스 수지 만성적자 규모 확대 기술·브랜드 경쟁력 하락 때문”

삼성경제硏 보고서

1990년 이후 서비스 수지의 만성적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기술과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비스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187억6천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1990년 이후 1998년을 제외하고 적자를 지속했다”면서 “2월 서비스수지 적자도 25억5천만달러로 월간 규모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2000년 1월 이후 석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서비스 수지를 구성하는 11개 항목 중 여행수지와 사업서비스수지, 특허권 등 사용료수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수지, 개인문화 오락 부문 수지, 보험서비스수지, 통신서비스수지 등 7개 부문이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출총제 대상 대폭 축소

7월부터, 264개사 → 27개사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오는 7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나 그 자회사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한다.

비상장사도 계열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연간 거래합계액이 연간 매출액의 10%를 넘으면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한정해 2조원 미만 계열사는 제외되도록 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은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규정해 11개 기업집단 264개사가 지정됐으나, 시행령이 시행되면 출총제 적용 회사는 7개 기업집단의 27개사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총수의 2세들이 지배 주주이면서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돼온 삼성그룹의 삼성SDS나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같은 회사들이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규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행령은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세부 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중 총수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나 그 자회사와의 거래로 정했다.

작년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대상인 41개 기업집단 975개 회사중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는 354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배우자 수입 月 481만원이면 직장인 46% “살림만 하겠다”

직장인의 46% 가량은 배우자의 수입이 평균 481만원 이상이면 집에서 살림만 전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은 최근 직장인 1천92명을 상대로 ‘배우자의 수입이 많으면 집에서 살림만 할 의사가 있는가’를 물은 결과 46.0%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성 응답자 중에서는 33.1%,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59.9%가 배우자 소득에 따라 살림을 전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배우자 수입이 얼마 이상이어야 전업주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월 ‘500만-600만 원’(27.5%), ‘400만-500만원’(25.3%), ‘300만-400만원’(21.1%)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481만원이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청우식품광주영업소	영업 및 매장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0	062-526-9160
㈜전통	무선기지국 시설/전송망운용 및 유지보수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20	062-527-6611
동아오츠카㈜순천	포카리스웨트외 자사제품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0	061-745-5770
㈜제니엘광주지사	[SK 휴대폰 광주/전남지역] 매장 관리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21	062-514-2928
광천물류	백화점 의류 상품 배송기사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21	062-515-1714
신창기업㈜	영업관리/납품 사원	고졸/경력1년	1600~1800	04/21	062-571-2777
뉴모텍㈜	모터개발 기구설계 연구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4/22	062-601-0812
㈜미래세계	SK텔레콤 114 정규직 상담원/미납 동시지원가능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23	062-383-1756
㈜디에스피	해외영업담당/일본어통번역/오더/바이어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4/25	062-954-4564
신진정밀㈜	머시닝센타/CNC선반/경력직 사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4/27	062-954-0951
㈜도원	[광주] 파리바게뜨 MD매니저겸 서무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30	062-381-8201
윤선생영어교실(광주북구점)	[영어교육명문학교]상담/관리 선생님 채용공고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4/30	062-526-0566
㈜유탑엔지니어링	출납경리 및 회계업무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4/30	062-228-0222
해원반도체㈜	LED분야 1년이상 생산관리 경력직 모집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4/30	062-602-78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